현장시선

대기업들의 렌터카 총량제 소송 유감

송 규 진
(사)제주교통연구소장

최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 총량제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제주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다. 렌터카 총량제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수요관리 정책 중의 하나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차량은 39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중 렌터카는 3만2000대가 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렌터카가 10%도 되지 않아서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재적으로 일반 차량인 경우는 도로점유율이 20~30%가 되지만, 렌터카는 70%가 넘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도로에서 렌터카 번호판을 단 차량 들이 일반 차량들 보다 훨씬 많이 목격되는 것이 도로점유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제주도민들은 렌터카가 적당히 운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여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왔으며,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 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결과 2만5000대가 적정한 렌터카 수량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제주도내 중·소형 렌터카 업체들은 감차에 따른 막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단기간에 급증한 렌터카로 인해 지속적인 도로 정체가 발생하고 도심권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을 인정하여, 렌터카 총량제에 대승적 참여를 선포하였으며, 자율 감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하여 관련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영업소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제주도내 업체들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를 제기한 것에 대한 유감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운행제한 고시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점에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자율 감차에 동참한 제주도내 중·소 업체들의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표명하고, 대기업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필자는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영세 지역 업체들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들의 사유재산 침해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내 업체들은 5000여대 이상의 차량을 향후 감차 해야 하는 큰 재산상의 손실이 있음에도 제주도의 수요관리 정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철학은 제주도내 업체들이 대기업보다 훨씬 앞선다고 평가를 하고 싶다.

금번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 영업소에서 자율 감차하는 대수는 700여대에 불가한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를 지켜보는 도민들이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고 생각 되어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내에서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작금이 이러한 비용이 제주도민들이 온전히 떠안고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주 관광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제주도의 교통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뿌려서는 곤란하다 하겠다.

대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렌터카 총량제에 적극 동참 하여, 대기업으로서의 지역 업체와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주길 기대해 본다.

사설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서둘러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사실상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묶어놓은 사유지에 대한 개발제한이 전면적으로 해제됩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과 도로에 대해 보상하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은 물론 보상협의가 순탄치 않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편입된 토지 보상비 4274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보상비 420억원을 마련해 사라봉공원·남조봉공원·용담공원·동복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된 동복공원과 용담공원은 우선 보상을 실시 중입니다. 남조봉공원과 사라봉공원도 이달까지 보상하는 등 올해 상반기까지 확보된 예산의 70%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시공원은 주택이나 도로가 편입되면서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보상협의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도로와 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본격화했지만 하반기에는 보상비 예산이 바닥나 토지 매입이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한 789억원을 투입해 31개소(도로 26개 노선, 공원 5곳)의 사유지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사유지는 도로 225필지(5만4738㎡), 공원 36필지(25만3009㎡)로 각각 350억원, 256억원의 보상비가 지급됐습니다. 현재 남은 예산 183억원으로 도로 5개 노선과 삼매봉 공원내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이달 말까지 모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확보된 토지 매입비가 상반기중에 모두 집행될 예정이어서 추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뜩이나 인구 증가에 따라 1인당 공원 면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제주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이 2011년 10.6㎡에서 2017년 6.2㎡로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묶였던 도시공원들이 해제된다면 도시공원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의 표적이 되면서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사유지 매입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열린마당

여름철 해수욕장 피서 필수품 '안전의식'

강 문 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에서는 피서객들을 위한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2019년 서귀포시에서는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비롯한 화순, 표선, 고성신양 지정 해수욕장 4개소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 동안 개장하게 된다.

이에 우리 행정에서는 해수욕장 운영 안전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정해수욕장 4개소와 논짓물, 황우지 해안, 해수풀장 등 유명 물놀이 지역에 민간안전요원 80여명을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안 풍광과 에메랄드빛 물빛이 매력이 있는 서귀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서귀포 바다가 멋진 풍경과 낭만적인이고 이국적인 모습의 즐거움이 대상임과 동시에 '위험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사소한 사고라도 곧 생명과 직결 될 수 있기에 즐거운 추억 만들기에 도움을 주고자 몇 가지 필수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

해수욕장을 방문하신 피서객들은 해수욕장 관리 안전요원들의 안전지도는 피서객들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소통하는 마음으로 안전통제에 따라 주길 꼭 부탁드린다. 그리고 수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은 실천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어린이, 노약자 등 피서객의 안전도 함께 챙겨 줄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서귀포 해수욕장 여름 피서가 되길 바라며 해수욕장 이용에 필수품인 '안전의식'을 모두 챙겨서 사고 없는 즐거운 서귀포시 해수욕장을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건수 외에 내용·가결여부 종합평가 해야"

경쟁적 조례안 발의 지적

○…11대 의회 들어 제주도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는 현상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이 볼멘소리.

한 도의원은 "언론이 단순히 발의 실적만으로 의원 성적순을 매기는 기사를 쓰면서 심해진 것 같다"며 "실적 상위에 오른 의원들을 보면 기존 조례의 '자구'만 수정하거나 상임위와 관련된 내용을 처리한 것까지 포함해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

또 다른 도의원은 "발의건수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내용과 가결여부 등을 종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 표성준기자

서울서 제주관광 홍보 주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9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제주관광 홍보에 주력.

또 이번 박람회와 통합 진행되는 서울국제트래블마트에서는 호텔업계와 관광지, 여행사를 포함한 10개 도내 관광사업체가 셀러로 참가해 마케팅 활동을 전개.

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힐링, 체험 등 맞춤 콘텐츠 홍보를 통해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마디. 이상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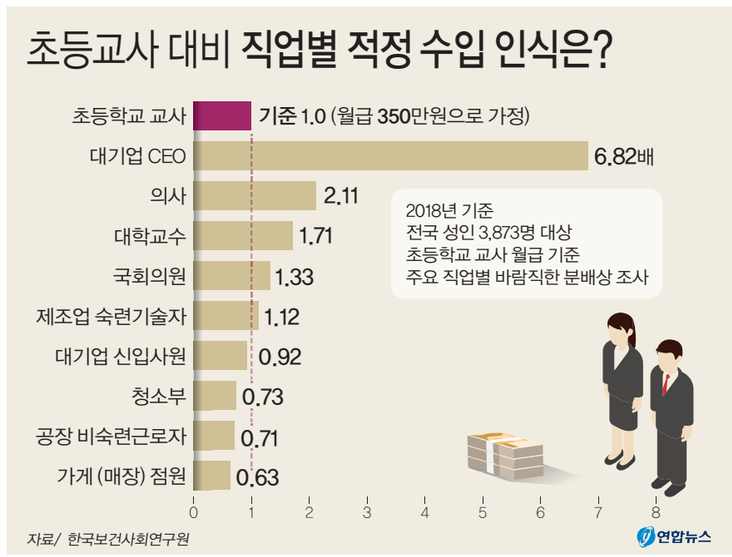
학생들 현충일 의미 되새기기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도내 일부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호국영령을 추모.

지난 5일 제주고는 6·25 전쟁의 참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전문강사 초청 강연을 진행했으며, 창천초는 안덕충혼묘지 참배활동을, 제주중앙여중은 학생자치회 기획으로 현충일 퀴즈대회를 개최.

학교측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호국보훈의 정신을 함양하고 현충일의 의미와 전쟁이 주는 교훈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자평. 오은지기자

그래픽 뉴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신천강공 경조(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7일

아 들 강기훈
두훈 며느리 이순희
지운 안규미
딸 강은심 사 위 김양수
혜정
은숙 강갑주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대학병원 임상결과 1일 5g섭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사무실 임대
위 치 한라일보사 1층 (제주시 서사로 154)
전용면적 175㎡(분할가능)
용 도 의원, 사무실, 학원 등 전업종 가능
주차장 완비
문의 064-750-2530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본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에서 개장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기수	비고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047-5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장소 : 성산읍 봉안당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하에 적정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화장 후 무연고 봉안당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김종국 ☎ 010-3693-61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1096번길 92-101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064)760-6522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 사업구간내에 식별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19년 6월 7일
위공고인 : 김종국 ☎ 010-3693-61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1096번길 92-101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제주도정 소식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 유상 운송행위 등을 상시 단속하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조치합니다.
《문의사항 : 관광정책과(☎710-3343)》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택배비 지원
○ 대 상 :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구매 후 택배회사를 이용하여 구매상품을 도외로 발송한 자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외 택배를 발송하는 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택배발송 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당 연간 최대 30건(2,500원×30건=75,000원)
○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카카오톡 친구추가 후 URL클릭
· 성명, 계좌번호, 택배송장 사진 등 서식에 맞게 입력
· 메일, 우편, 방문신청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후 메일, 우편, 방문신청
○ 신청안내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팀 (☎064-805-3383)

2018년 기준 광업 · 제조업조사 실시
○ 목 적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09호)
○ 조사대상 : 2018년 12월말 광업 및 제조업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B 광업』, 『C 제조업』)
* 도내 160개소 (제주시 112개소, 서귀포시 48개소)
○ 조사항목 : 연간 출하액, 영업비용, 유형자산 등 13개 항목
○ 주관/실시기관 : 통계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 조사표 작성
○ 조사기간 : 2019. 6. 12. ~ 7. 16.(35일간)
○ 문 의 : 제주시 총무과(064-728-2093),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93)